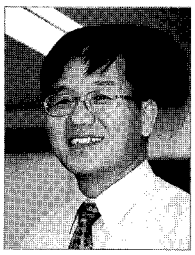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2010년도 육계산업 관련 동물약품시장 전망



장 긍 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1. 2009년의 육계산업을 돌아보며

육계산업과 관계된 동물약품 산업은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첫째, 육계 산물 가격이다. 육계의 가격이 좋으면 조금이라도 더 잘 키워서 수익을 늘리겠다는 육계 사양가들의 의지도 높아져 사양관리에 세심해지고 질병이라도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좋은 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육계 가격이 낮으면 생산성을 높여 그 경제적 손실을 낮추거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약품을 사용하라고 분석 자료까지 동원하여 아무리 설득을 해도 대부분의 사양가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2009년은 아주 좋은 한 해였다. 2008년 말부터 좋은 가격을 유지한 육계 산물 가격은 10월 전후를 제외한 2009년 내내 좋은 가격을 유지했다(〈표 1〉 참조).

둘째, 육계 사육수수이다. 아무래도 사육수수가 많게 되면 약품 사용량도 늘기 마련이다. 물론 과잉 생산으로 인해 산물가격이 나빠지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양가들은 여유자금과 의욕 부족으로 약품 사용이 줄어 들 수도 있다.

2009년에는 육계사료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하여 약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육계 사육수수는 증가하고 그 만큼 동물약품 시장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2007년과 비교하면 겨우 2%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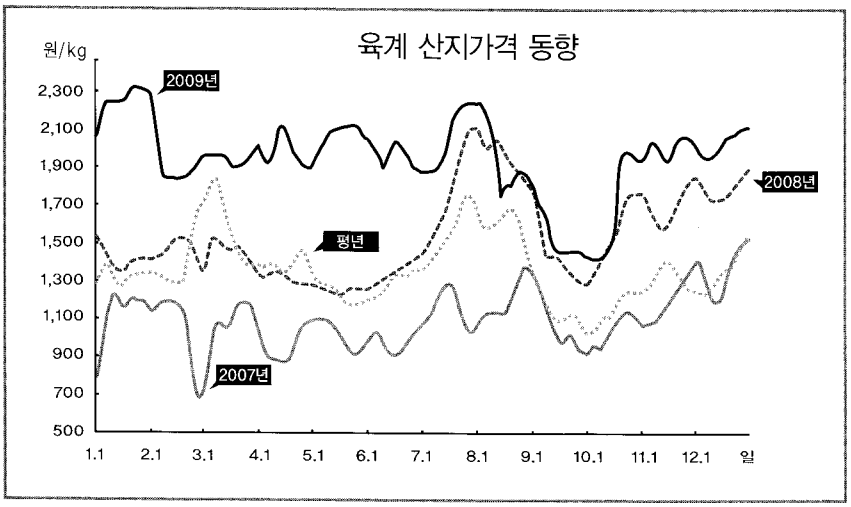
셋째, 사료가격이다.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양계농가에서 여유자금 부족으로 동물약품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사료값을 갚기도 급급한 상황에서는 생산성 운운은 끼어들 틈조차 없을 때가 많다.

그러나 사료원료가격 인상이 심각한 수준이라서 국내 사료업계가 사료 가격을 적정하게 정하지 못할 때에는 사료의 품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동물약품 수요가 늘기도 한다.

2009년은 외화 환율이 수입자 측면에서는 매우 악화된 상태여서 사료가격이나 동물약품 가격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 사양가들에게 힘든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닭고기 수입업자 측

〈표 1〉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 평년은 2004~200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에게도 똑 같은 부담이 주어진 관계로 닭고기 수입이 줄고 이로 인한 국내산 닭고기 수요 증가로 좋은 산물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도 국내산 닭고기 수요를 증가시키고 산물 가격을 받쳐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심각한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해왔듯이 심각한 질병의 발생은 육계산업 자체와 동물약품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우리는 과거에 뉴캐슬병(ND), 전염성 후두기관염(ILT), 전염성 기관지염(IB), 감보로병(IBD),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 등의 발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밖에 어떤 요인이 되었든 닭고기 소비량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곧 바로 동물약품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와 크게 다른 요인으로는 사회적 환경이 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 하나이다. 이미 배합사료 내에 첨가하여 사용하던 항생제의 대부분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배합사료공장에서 사용하던 항생제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질병 발생이 늘기 때문에 농장에서의 약제 사용은 늘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약제 사용량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 힘입어 항생제를 사용하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2010년도 육계산업 관련 동물약품시장 전망

〈표 2〉 육계 사료 생산량

(단위 : 톤)

연도	합계	전기	후기	출하
2009년 1~9월	1,491,099	827,720	661,477	1,902
2009년 1~12월(추정)	1,911,665	1,061,179	848,047	2,438
2008년 1~12월	1,774,245	996,800	744,670	32,775
2007년 1~12월	1,858,990	1,068,156	739,000	51,834

지 않고 닭을 사육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 상조이나 성공했다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고, 부가되는 생산비를 보상해 줄 정도의 시장 가격 형성이 부족하고 생산성도 많이 떨어져 사육기술 개발이 따라 오려면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한다. 닭고기 산업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혁명적 기술 발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질병 측면으로 본다면 2009년은 육계산업을 포함한 양계산업에서 특별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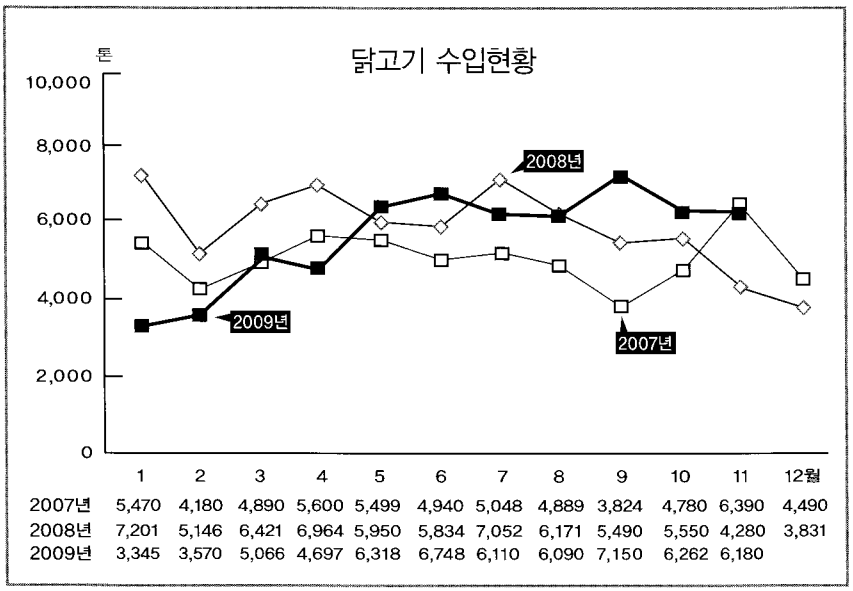
우선 모두가 우려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양계인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정부 기관 및 위생 방역 기관에서는 예찰을 강화하고 농장이나 단체에서는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실행한 결과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만성적 발생으로 여길 정도로 흔하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발생까지도 현격히 줄어든 한 해였다. 어떤 이들은 신종플루로 인한 걱정 때문에 방역위생관리가 잘 되어 오히려 덕을 보았을 것이라고도 한다. 뉴캐슬병 발생도 감소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게 세상이치인지라 새로운 질병으로 고민을 해야 했던 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봉입체성 간염과 닭 전염성 빈혈증이다. 이 두 질병은 과거에도 약간씩 발병은 해왔었으나 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종계로부터 수직감염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육계 사양가 뿐만 아니라 육계 종계장에서도 심각히 다루어야 하는 질병이다.

닭 전염성 빈혈증은 다행히도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봉입체성 간염은 예방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항생제로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닭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다

〈표 2〉 닭고기 수입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2007년	5,470	4,180	4,890	5,600	5,499	4,940	5,048	4,889	3,824	4,780	6,390	4,490
2008년	7,201	5,146	6,421	6,964	5,950	5,834	7,052	6,171	5,490	5,550	4,280	3,831
2009년	3,345	3,570	5,066	4,697	6,318	6,748	6,110	6,090	7,150	6,262	6,180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른 질병의 발생을 높일 수 있어서 골치 아픈 요인이다.

2. 육계산업과 관련된 2010년의 동물약품 시장 전망

아주 힘든 대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물약품시장은 한 요인이 서로 다른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기에 전망하기가 어렵다. 육계 사육수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동물약품 시장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사료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동물약품시장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물약품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는 육계산업에 대한 전망을 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육계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외화 환율의 변화이다. 외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어 사료원료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양계가에게 가장 큰 비용부담 요소인 사료가격의 호전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 개선이 중국에서의 사료작물 수확 부진이나 브라질, 미국 등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 곡물을 이용하는 것 등을 보상해 줄지는 의문이다. 전반적으로는 올해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리라 예상된다.

외화가 약세로 전환되면 닭고기 수입량도 늘어날 것이어서 국내 사양가들에게는 불리한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2010년도 육계산업 관련 동물약품시장 전망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닭고기 수입량이 점차 늘어나서 작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표 3〉 참조).

병아리 가격이 올해처럼 계속 높게 유지되면 결국 병아리의 품질로도 연결될 수 있어 동물약품 사용량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높다.

질병 발생이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특히 뉴캐슬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잘 방어해 왔지만 그로 인해 다시 조심을 게을리 한다면 무서운 질병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산업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만성적 질병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힘을 기울여 국내 육계산업이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마이코플라즈마, 감보로병 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등의 변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많은 백신과 소독제 등이 정부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산업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양계가 입장에서는 간접 구매가 되는 까닭에 약제의 선택 사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설에 의하면 2010년에는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 한다. 비용부담 없이 사용해오던 소독약이나 예방백신이 자체 구매로 전환되게 되면 그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원치 않았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육계산업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동물약품업계는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조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특별한 사고나 사건이 없다면 육계시장과 관련된 동물약품 시장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2~3% 성장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약품업계는 시장의 성장 혹은 감소에 관한 관심도 중요하나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도록 그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약품을 쓰느냐 보다 어떻게 올바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면 국내 육계산업은 성장 발전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동물약품 산업도 지속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